

Global Leading University

2021년 LC 활동

최우수 포트폴리오 자료집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SKKU University College

Global Leading University

2021년 LC 활동

최우수 포트폴리오 자료집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SKKU University College



2021년 LC 활동 최우수 포트폴리오

LC 04
Peer Leader 백민경

01

LC 포트폴리오 작성 참여자 및 역할

번호	계열	이름	역할 분담
1(PL)	인문과학	백민경	최종 정리 및 부족한 내용 보충
2(VPL)	자연과학	기효정	부족한 내용 보충
3	인문과학	곽성민	온라인 모임 정리 및 소감 받기
4	인문과학	민현우	LC소개 내용 채울 아이디어 + 원고작성
5	인문과학	박제은	LC소개 내용 채울 아이디어 + 원고작성
6	인문과학	염원	LC소개 내용 채울 아이디어 + 원고작성
7	사회과학	박지빈	집단학사 내용 정리 + 소감 받기(명/울)
8	사회과학	서지연	오프라인 모임 정리 및 소감 받기
9	사회과학	송지원	LC원 한마디 소감 받기
10	사회과학	장영주	오프라인 모임 정리 및 소감 받기
11	사회과학	조강연	오프라인 모임 정리 및 소감 받기
12	사회과학	조용빈	LC소개 내용 채울 아이디어 + 원고작성
13	자연과학	박정준	새내기 미션 + 게시판 정리
14	자연과학	박준수	오타자 검수 및 편집
15	자연과학	정세영	오프라인 모임 정리 및 소감 받기
16	자연과학	최호수	엘잡 제작 과정 및 착용샷 정리
17	공학	박상은	집단학사 내용 정리 + 소감 받기(명/울)
18	공학	송채린	엘잡 제작 과정 및 착용샷 정리
19	공학	위종욱	온라인 모임 정리 및 소감 받기
20	공학	지건욱	오프라인 모임 정리 및 소감 받기
21	공학	최연제	새내기 미션 + 게시판 정리

※ PL: Peer Leader / VPL: Vice Peer Leader

02

우리 LC의 특징

❖ PL의 한마디

늦겨울과 초봄, 롱패딩을 꺼내어 입을 만큼 쌀쌀한 날씨에 팀빌딩에서 처음 만난 우리 엘씨인데, 벌써 수능이 그리고 또 겨울이 다가와 1학년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참 어색해요. 올해 1년만큼 시간이 빠르게 흘러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건 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보냈던 시간이었기 때문이겠죠?

일 년 늦게, 또 아는 사람 없이 학교에 들어와 정말 걱정이 많았는데, 우리 착한 승아, 용민 FG부터 시작해서 LC04에서 만난 모든 엘씨원들이 다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이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학교에서 정말 무작위로 짠 20명가량의 인원들이 잘 맞기도, 또 정말 오래 볼 친구를 만나는 일도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엘씨는 그런 인연들을 많이 만든 것 같아서 기쁩니다. 우리엘씨는 다행히도 대면 수업 위주였던 1학기 때 고전명저북클럽을 들어서 서로 얼굴 볼 기회도 정말 많았고, 다들 자발적으로 고명북 수업 전후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놀러도 가고 하면서 많은 인원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엘씨원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피리인 제가 학교의 다른 일들 때문에 너무 바빠서 엘씨 안에서 많은 역할들을 해내지 못하고, 친목을 다지는 데에 기여하지 못한 것 같아서 너무 아쉽다고. 근데 우리 엘씨원들이 다들 알아서 서로 잘 만나고 또 잘 지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지금에서야 일 년을 되돌아보면, 빠지는 인원들 없이 다른 엘씨의 피리처럼 조를 짜서 고명북 전후에 밥을 먹었으면 어땠을까? 싶기는 해요. 물론 지금에서야 아쉬운 점이지만!

이제 좀 더 친근하게 적어보자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LC04!!! 정말 못 챙겨준 것도 많고, 잘 해준 것도 없는데 항상 내가 하는 일에 잘 따라주고, 신뢰를 줘서 너무너무 고마웠어. 내가 아직도 가끔씩 떠오르는 우리 엘씨원이 했던 말이 있는데, 언니를 피리로 뽑은 게 참 잘한 선택이었다는 것. 엄청 학기 초반에 들은 말인데, 내가 엘씨에서 무언가를 추진할 때마다 항상 떠올랐던 말이야. 그래서 더 조심하고, 완벽하게 해내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 일 년 동안 완벽한 피리는 아니었겠지만, 좋은 언니, 누나, 친구, 동생으로 기억되었다면 좋겠다. 너네의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추진력을 받아서 잘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 어깨동무도, 그리고 이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것도 다 너무 잘 따라와 줘서 고마웠어. 여름에 가고 싶었던 엠티도, 그리고 한 번도 다 같이 못 한 회식도 너무너무 아쉽지만, 우리 인연이 올해에만 한정된 건 아니라고 생각해. 코로나 단계 변화되면 내가 꼭 추진할 거니까, 다 같이 얼굴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더 먼 미래에 2021년을, 내 스물하나를 떠올려보면, 우리 엘씨랑 함께 했던 것들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아있을 것 같아. 부디 너네도 올해가 좋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 LC04 FOREVER ♥

❖ 우리 LC는 000다!

우리 LC는 가족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2학기 비대면 수업 상황 속에서도,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도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도우며, 같이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합치는 미덕을 잃지 않고 생활해 왔다.

우리 LC는 바다다. 서로 다른 물줄기가 모여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다양한 계열의 친구들이 하나가 되어 LC04를 이뤘기 때문이다.

우리 LC는 봉어빵이다. 길 가다 만나면 반가우니까!!

우리 LC는 무지개다. 무지개는 하나의 색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 남색, 보라색 등 다양한 색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색들의 개성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 LC원들도 개성이 넘치고 이들이 하나가 되기에 무지개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우리 LC는 에브리타임이다. 험난한 내 대학 생활을 도와주기 때문이다. 고마워 애들아!

우리 LC는 짬뽕이다. 짜장면처럼 면이랑 소스만 있지 않다. 해산물, 면, 채소 등이 다 어우러져 진국이 된다.

우리 LC는 진국인 짬뽕이다.

우리 LC는 구름이다. 우리 LC원들은 금세 함께 모여서 웃고 떠들고 놀다가도 어느새 각자의 위치로 흩어져서 자신의 일에 정진하기 때문이다.

우리 LC는 비트코인이다. 어쩔 때는 LC원들이 다 신나 있다가 시험기간만 되면 분위기가 다운된다. 마치 비트코인의 가치 곡선을 보는 것과 같다.

우리 LC는 돌이다. 굳세고 단단해 다른 LC를 씹어 먹을 정도로 강한 팀워크를 가지고 있다.

우리 LC는 무한도전이다. 무한도전 멤버와 동일시되는 LC원들이 다 있다.

우리 LC는 '짱구는 못말려' 프로그램 현실 버전이다. 정말 못 말린다.

우리 LC는 '동물농장' 프로그램이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다 모여 있다.

우리 LC는 고향이다. 1학기 대면 수업 동안 매일 같이 보았다가, 2학기에 비대면 수업이 되어 자주 보지 못하게 되니 그리워졌기 때문이다.

우리 LC는 독서실 사람들이다. 사람들과 모두 모여 밥 한번 같이 먹은 적 없다.

우리 LC는 새하얀 도화지였다. 서로 아무것도 모르던 사이에서 1년 동안 수업도 함께 듣고 밥도 함께 먹으며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그 도화지를 화려하게 채워가고 있다.

우리 LC는 옴니버스다. 모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는 LC04, 하나로 모이기 때문이다.

우리 LC는 넷플릭스다. 안 보더라도 꼭 필요하다.



1. 참여 LC 프로그램

❖ 어깨동무 자율학습 동아리

◇◇◇◇◇◇◇◇◇◇

- **구분/주제** : 고전명저북클럽
- **참여 인원 및 명단** : 5명(백민경, 박제은, 조용빈, 최연제, 최호수)
- **활동 기간** : 2021. 03. 15. ~ 2021. 05. 21.

• **활동 내용** :

현재 LC04가 직권배정 받은 고전명저북클럽과 같은 경우 독서나 영화감상보다는 토론을 주로 하였다. 그러나 매시간마다 교수님이 사전에 올려주시는 모든 토론주제를 다루기 어려우며, 자신의 조가 아닌 인원과 의견을 교류하기 어려운 점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해당 주차에 있는 토론 주제를 최대한 다양하게 다루고자 하였다. 코로나 상황을 감안하여 오프라인 모임은 자제하였고,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많아 룸메이트가 있다는 점과 학우들끼리의 시간 조정이 어려움을 감안하여 웹엑스나 줌과 같은 플랫폼이 아닌 카카오톡 그룹콜 기능을 활용하였다.

LC원들의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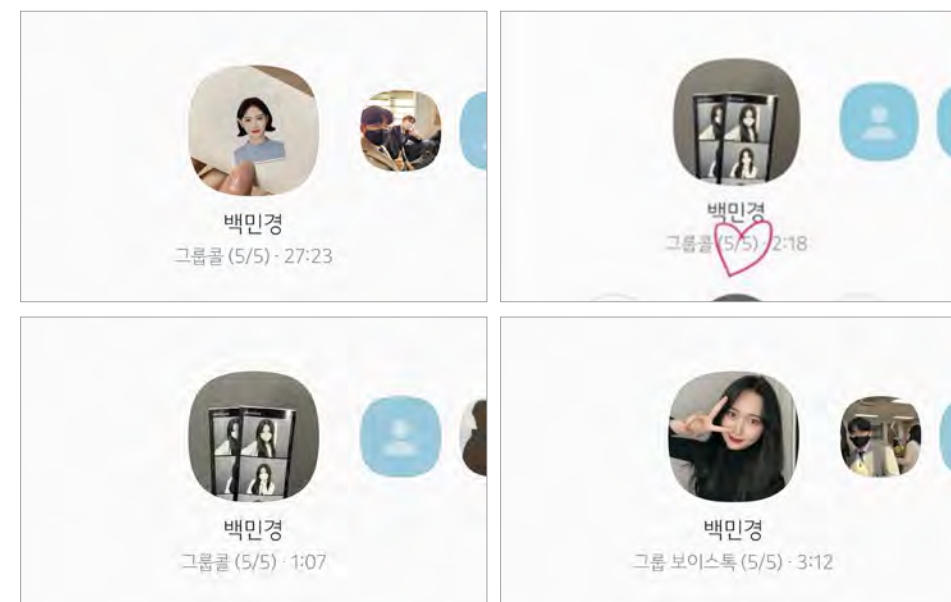
백민경: 타 주제에 대한 토론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수업시간에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다 다루지 못하는 점이 아쉬웠다. 그러나 어깨동무 활동으로 인해 타 주제를 타 학우들과 다양하게 의견을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또한 명륜과 율전이 섞인 어깨동무 조 편성으로 인해 타 캠퍼스 학우들과도 이야기하고 친해질 수 있던 기회가 된 것 같아서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다.

박제은: 처음 고명북 수업에 어려움을 느껴 어깨동무 활동을 신청했는데, 활동을 진행하며 수업에 가지고 있던 거부감을 없앨 수 있었다. 어깨동무 활동을 하며 수업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토의해보며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이 좋았다. 일상생활에서는 이러한 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일이 없기 때문에 수업 내용에 대한 이해는 물론, 배운 내용에 비추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조용빈: 토론이 아니라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어깨동무 활동을 진행하면서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와 같은 이타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었다. 내가 내 의견을 개진하는데 있어서, 주장과 근거를 유기적으로 제시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었고, 고전명저북클럽 수업 전에 미리 주제를 접하고 생각을 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최연제: 고전명저북클럽 수업에서와는 다른 학우들과 토론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수업때는 정해진 조에서 일부 학우들과만 이야기하지만, 어깨동무에 참여해서 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어깨동무를 통해 처음 만난 학우도 있었고, 친목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최호수: 하나의 주제에 관해서, 단순한 찬성과 반대를 나누어 이야기 하는것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해봄으로서 하나의 관점을 벗어나 다양한 생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여러친구와 의견을 교환하며 이전보다 더 자신감이 붙고,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었으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다.



◇◇◇◇◇◇◇◇◇◇

- **구분/주제** : 고전명저북클럽
- **참여 인원 및 명단** : 5명(기효정, 곽성민, 민현우, 박상은, 지건욱)
- **활동 기간** : 2021. 03. 15. ~ 2021. 05. 21.

• 활동 내용 :

각 조별로 수업시간에 토론했던 내용들에 대해 각자 주제를 선정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진행하였다. 그 후 서로 수업시간에 의문이 들었던 내용들을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각자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LC원들의 한마디

곽성민: 저는 어깨동무 활동을 상당히 즐겁게 참여하였습니다. 특히 LC 친구들과 zoom을 이용하여 고전명저북클럽 수업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 심도있게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진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서로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수업시간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몰랐던 점들에 대해서도 더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는 토론을 통해 서로가 가까워질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즐겁게 느껴졌습니다. 만약 어깨동무 활동을 다시 할 기회가 생긴다면 다시 한 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효정: 수업시간 중 의문이 들었던 내용들에 대해 서로 이야기함으로써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질 수 있었다. 또한 일정한 주기로 각자 맡은 주제를 설명하는 과정을 넣었기에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역시 확인하고 보충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또한 토론을 통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에 학습적인 방면이나 친목을 다지는 방면 역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었다. 그렇기에 이 활동을 하게 될 다음 친구들에게도 적극 추천하고 싶다.

민현우: 어깨동무 활동을 학우들과 하면서 입지와 수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더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 유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이 더 풍부해졌습니다. 특히 수렴에 대해서 자료조사와 발표준비를 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를 원만히 해결하고 성공적인 발표를 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박상은: 고등학교 시절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식의 프로그램만 진행해왔었는데, 어깨동무라는 어떤 내용에 대해 다같이 토론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신기하고 좋았음. 각자 맡은 주제에 대해 조사를 해오며 수업시간에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내용들도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됨. 또한 매주 일정을 맞추어 규칙적으로 활동을 진행하였기에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좋은 동력이 되었던 것 같음.

지건욱: 어깨동무 활동을 하면서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교수님의 설명이 아니라 같이 배우는 입장의 동기들에게 설명을 받으면서 다른 학우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해했는지를 배워가면서 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더 공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 구분/주제 : 고전명저북클럽

• 참여 인원 및 명단 : 5명(위종욱, 염원, 장영주, 정세영, 조강연)

• 활동 기간 : 2021. 03. 15. ~ 2021. 05. 21.

• 활동 내용 :

LC원들 끼리 익숙하지 않은 성학이라는 분야, 그리고 고전명저북클럽이란 강의를 서로 도와가며 의논을 통해 완전하게 익히기 위해 토론을 진행하였다.

LC원들의 한마디

위종욱: 처음에는 이해하기 힘들었던 성학집요를 어깨동무 조원들과 깊이있는 대화를 통해 같이 이해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성리학이라는 주제가 평소에는 다소 생소하고 고리타분하게 들릴 수 있다고 느꼈는데 강의에서 교수님이 설명하시는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도 모임에서 서로 공유해가며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었고, 공학도로서 평상시 접하지 않는 내용을 공부해가며 생각의 깊이를 넓힐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활동은 종강 이후에도 기회가 된다면 어깨동무 활동 이외에 스터디 같은 활동을 진행해볼 생각을 하게 된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한다.

염원: 처음 고전명저북클럽을 수강하게 되었을 때, 성학집요를 배운다는 것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접해본 적도 없는 낯선 개념이 많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막막하기만 했는데, 어깨동무 활동을 통해 다양한 계열 학우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면서 과목에 대한 거부감이 점차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수업 중에 토론했던 주제들을 다시 한번 토론해보면서 복습하고,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나눌 수 있다는 점도 좋았습니다.

장영주: 고전명저북클럽 수업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토론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성학집요』를 혼자서 학습할 때는 개념이 모호한 것들이 많아 이해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어깨동무 활동을 통해 조원들과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면서 새롭게 정의해나갈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정세영: 고전명저북클럽 강의를 들으면서 다소 생소한 내용이라 혼자서 이 내용을 숙지하기에 어려움을 느꼈고 토론 주제를 생각하고 후에 시험을 볼 때 어떡하면 좋지하는 막막함을 느꼈었는데 어깨동무 활동을 통해 동기들과 함께 본인의 생각을 공유하고 서로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져서 강의에 대한 막막함을 덜 수 있어 유익했고 동기들과 친해질 수 있게된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

조강연: 율곡 이이 선생의 성학집요에 대해 어깨 동무 조원들과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면서 생각과 사고의 확장을 이룰 수 있었다. 매주 고전명저북클럽 수업 전 혹은 이후 수업 시간에 다룬 토론을 다시 어깨동무 조원들과 열띤 토론을 하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여 여러 생각을 교차로 검토해보고 나만의 생각을 확립하는 좋은 계기로 어깨동무 활동을 할 수 있어 보람 찬 한 학기였다.

◇◇◇◇◇◇◇◇◇◇

- **구분/주제 :** 고전명저북클럽
- **참여 인원 및 명단 :** 6명(박준수, 박정준, 박지빈, 서지연, 송지원, 송채린)
- **활동 기간 :** 2021. 03. 15. ~ 2021. 05. 21.
- **활동 내용 :**
어깨동무를 통해 팀원 모두가 어려워하는 고전명저북클럽에 대해 더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자 하였다. 수업시간이 한정적인데 수업 질 좋은 토론주제는 6개 가량 주어진다. 이 주제들이 모두 주차별 강의내용과 연관성 있기 때문에 수업에서 못다룬 주제들을 따로 다루는 활동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를 어깨동무에서 하고자 하였다. 주차별 학습주도자가 활동에서 다룬 토론 주제를 정하면 팀장이 공지 문자를 보내고, 그 아래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였다.

LC원들의 한마디

박준수: 고전명저북클럽 시간에는 한 토론 주제를 갖고 정해진 조원끼리 의견을 나누는 활동을 한다. 따라서 수업시간에 안 다룬 토론주제로, 수업때와 다른 인원끼리 의견을 나누는 어깨동무 활동은 여러 다른 의견들을 볼 수 있어서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저는 팀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매주 보고서 작성을 위해 조원들의 의견을 정리해보기도 했는데, 여기서 각 조원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결론을 도출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서 좋은 활동시간이었습니다.

박정준: 어깨동무활동으로 한 학기동안 '고전명저북클럽'이라는 과목에 대해 학우들과 공부를 하였다. 우선 매주 정해진 시간에 의견을 나누다 보니 강의 진도에 맞춰서 밀리지 않게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또한 고전명저북클럽이라는 과목 특성상 자신만의 생각을 계속 정리하는 것보다는 타인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비교해보는 것이 더 이 과목을 공부하는데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어깨동무활동을 통해 학우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더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박지빈: 어깨동무 활동을 하면서 고명북 수업준비와 내용정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고명북 수업때 다루는 책이 성학집요 산책이다보니 다소 추상적으로 느껴지고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았는데 어깨동무를 하면서 미리 강의를 듣고 토론주제를 생각하다보니 수업준비를 더 열심히 할 수 있었고, 수업에도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토론주제의 경우 계속해서 강의내용을 복습하고 생각해야하는데 어깨동무를 하면서 다른 조원들의 생각도 들 수 있어 토론주제를 생각하고 강의내용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수업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주제도 조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습니다. 다시 수업내용을 복습하는 기회도 얻고, 수업을 한 후 배운 내용을 적용해 볼 수 있는 기회여서 훨씬 효과적으로 지난 수업내용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서지연: 어깨동무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내 시각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시각으로도 문제를 볼 수 있다는 점이었다. 조원들과 함께 매주 같은 주제에 대해 이야기 하였지만 6명의 의견이 모두 일치되었던 점은 없었다. 물론 주제에 대해 나 스스로 깊이 생각해보는 활동도 큰 의미가 있었지만, 다른 조원들의 의견을 보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알게 되는 것이 정말 나에게서 뜻 깊은 활동이었다. 또한 내가 이 활동을 통해 여태껏 미처 하지 못했던 생각들 역시 다양하고 자유롭게 해 볼 수 있어서 색다른 기분이었다. 자칫 한 사고에 갇혀 편협한 시각을 가질 수 도 있었지만 이 어깨동무 활동이 내게 넓게 생각하고 보는 법을 알려준 활동 같았다.

송지원: 고전명저북클럽 수업은 2시간동안 진행되는데 그 시간동안 토론주제를 모두 토론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했다. 학우들과 함께 토론해보고 싶은 내용이 많았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한다는 점이 굉장히 아쉬웠는데 어깨동무 활동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니까 좋았다. 어깨동무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은 내 의견이

아니라 타인의 의견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발상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라는 것이다.

송채린: 어깨동무를 하는 시간은 수업시간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더 깊게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업시간에 모든 토론 주제를 다룰 수 없으니 어깨동무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한번씩 짚고 넘어가서 좋았고, 나와 다른 의견들을 들으면서 한번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업시간에 짜준 조가 아닌 다른 조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더 많은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 귀찮을 때도 있었지만 한 주 한주가 모여 이렇게 한학기동안 어깨동무라는 활동을 했다는 것이 보람찼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집단학사 프로그램(명륜)



• **참여 인원 및 명단 :** 11명(백민경, 곽성민, 민현우, 염원, 박제은, 박지빈, 서지연, 송지원, 장영주, 조강연, 조용빈)

• **참여기간 :** 2021. 03. 04., 2021. 09. 07.

• **내용 :**

[1학기]

1학기 집단학사지도에서는 학업수행, 인적 네트워크 형성, 진로 설정, 자아 성장에 필요한 실제 조언을 제공해주시고,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를 통해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강연을 진행해주셨다. 아직 학교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어서, 학과 진입 요건부터 학점, 학적, 학사 주요 일정, 新 삼품제, 장학금까지 학교 생활에 필수적인 정보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주셨다. 이후 개별면담을 위한 상담 신청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셨으며, 이를 통해 개별상담뿐만 아니라 챌린지스퀘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상담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로 인해 학교 생활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는 아쉬움에 대한 격려의 말씀과 앞으로의 학교 생활에 대한 격려와 지원을 전해주셨다.

[2학기]

2학기 집단학사지도에서는 전공진입을 앞둔 대계열 학생의 자아탐색, 전공 및 진로 탐색을 위한 강연을 진행해주셨다. 먼저 FYE세미나에서 이수해야 할 활동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학부대학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과 타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교내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접하고, 2학기 전공탐색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위한 밑바탕을 마련할 수 있었다. 이후 학사일정에 대한 안내를 통해 수강 신청 기간, 기말강의평가 기간, 시험기간, 겨울 계절학기 시작 등 교내 중요한 학사 일정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특히 학기말에 진행되는 학과진입에 대한 안내를 통해 학과진입 신청방법, 일정, 성적반영 등을 알게되며, 2학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 의지를 다잡을 수 있었다. 또한 전공과목 이수 학점을 각 학과별로 확인하고, 복수전공, 연계전공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학부대학 주관 프로그램〉

온라인 동영상: 자아탐색, 학과설명, 직업정보, 취업준비, 산업&직무이해, 커리어로드맵에 대한 강의 진행

집단학사지도: FYE세미나II 교과목 소개, 학사안내(학과진입 등)

개별면담: 성균멘토와의 개별면담을 통해 학사제도 및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상담 진행

어깨동무: 교양 기초 교과목 등의 LC 스터디 그룹 활동

글로벌버디: 한국 학생과 외국인 학생이 1대1 친구 매칭하여 캠퍼스 라이프 함께하기, 한국어 배우기 등의 활동을 함께 하며(온/오프라인) 대학생생활에 적응하고 글로벌 역량을 기르는 프로그램

학과탐색캠프: 양 캠퍼스 대계열 1학년 학생들의 학과진입에 필요한 사전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학부 대학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

〈타기관 주관 프로그램〉

성균인성교육센터: 인성함양 실천 프로그램(흥인, 돈의, 송례, 흥지) 등

교육개발센터: 학습컨설팅, 학습법 특강, 학습법 워크숍 등

대학혁신과공유센터

- 수기치인 시민의식 프로그램: 강의와 봉사활동으로 시민의식을 함양하는 프로그램

- 창조스쿨 프로그램: 창의성 발견, 창조적 생각도구, 창의적 문제해결 프로그램

- 코딩러닝 프로젝트: 지도교수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로그램

카운슬링센터: 진로/적성 검사 및 해석 상담

학생인재개발팀: E-DISC 검사를 제공(성격에 최적화된 직무 매칭 검사, 직무 키워드를 기반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등에 활용 가능)

글쓰기클리닉: 보고서와 자기소개서 등 각종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위한 맞춤형 글쓰기 지도 서비스

학생성공센터: 학생성공스토리 특강, 학생성공 멘토 등의 프로그램

新삼품제

졸업요건

- 인성(필수), 글로벌, 창의, AI, 인턴십 4개 분야 중 2개 인증

인증신청 방법

- 증빙서류를 챌린지스퀘어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취득방법

인성

- 40시간(교외활동 20시간 이상)

글로벌

- TOEIC 950 점 이상(이공계 900점 이상) , 해외 교환학생

창의

- IT 관련 자격증,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90시간 이상

AI

- AI 공모전, AI 교과교육 9학점 이상

인턴십

- 현장실습, 연구체험, 교내 비교과프로그램 등

장학금

성적장학금

- 기준 조건: 성적기준, F 성적 없이 12학점 이상 이수

- 학부대학 대계열 학생들은 신청 불필요

문행장학금(가계곤란 장학금)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소득 분위 판정을 받아야 함

학생성공장학금

- 창의적 우수인재로 단과대학에서 추천

- 글로벌 역량 또는 리더십 역량, 등록금 외 생활비 지원

대외장학금

- 해당 장학재단에 개별적으로 신청

- 추천서 발급은 담당 성균멘토에게 요청

- 학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장학게시판 수시 확인

LC원들의 한마디

백민경: 엘씨원들과 함께하는 집단학사지도를 통해 학기의 전반적인 내용과, 숙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안내받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멘토님이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더 쉽게 숙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학기 때는 대면으로 진행되어 엘씨원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고, 2학기 때는 비록 온라인이었지만 1학기 종강 후 처음으로 엘씨원들을 다같이 만날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곽성민: 비대면임에도 엘씨원들의 얼굴들 봐서 너무 좋았고 멘토님도 오랜만에 뵈어서 좋았습니다~!

염원: 새내기에게 꼭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알 찬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이 혼란스러웠지만, 집단학사 덕분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조강연: 처음 학교에 와서 뭐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나에게 쉽고 간단하게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을 알려주신 소중한 분이였다. LC 친구들과 집단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학 생활에 필요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유용한 시간이였다.

조용빈: 비록 나에게서는 전공진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는 않았지만, 전공진입 관련 정보 외에도, 글로벌버디 등 학교에서 학생들의 경험을 위해 제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서 유익했다. 집단학사 때는 물론 개인적으로 상담을 신청하였을 때도 느꼈지만, 멘토님이 학생들을 매우 친절하게 대하시고,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무엇보다 집단학사를 계기로 LC원들도 오랜만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다.

박지빈: 집단학사를 통해 전공진입에 대한 정보도 얻고, 다양한 학사행사들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다양한 타기관 주관 프로그램들에 대해 알 수 있어 비교과 활동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집단학사를 통해 LC친구들을 처음 만났기에 더욱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습니다.

서지연: 집단학사를 통해 나의 향후 진로를 멘토님의 조언을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박제은: 집단학사를 통해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있어 중요한 사항들을 알 수 있었고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송지원: 집단학사 교수님이 너무 친절하셔서 궁금한 것도 쉽게 물어볼 수 있었고 상담도 현실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장영주: 학기 초에 학사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어 좋았고, 성균멘토님께 학점 관리에 대한 팁도 얻어갈 수 있어서 유익했습니다!

❖ 집단학사 프로그램(울전)

◇◇◇◇◇◇◇◇◇◇

• **참여 인원 및 명단 :** 10명(기호정, 지건욱, 위종욱, 송채린, 박상은, 최연제, 박정준, 최호수, 정세영, 박준수)

• **참여기간 :** 2021. 03. 09., 2021. 09. 03.

• **내용 :**

2021년 3월 9일과 9월 3일, 각각 1학과와 2학기 자연과학캠퍼스 집단학사지도가 약 30분-1시간가량 진행되었다. 1학기에는 강의실에 모두 모여 오프라인으로 집단학사지도를 진행하였지만, 2학기에는 코로나의 악화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1학기에는 간단한 자기소개와 희망 전공, 취미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 멘토님께서 각 과목 공부법이나 참고할 만한 사이트들에 대해 알려주셨다. 2학기에는

방학동안 각자의 근황과 2학기 어깨동무를 진행하고 싶은 과목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에는 멘토님께서 2학기에 진행될 FYE 세미나 과목과 LC 포트폴리오에 관한 설명을 해 주셨다. LC원들과 조금 더 가까워지고 학교생활에 대한 유익한 설명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 집단학사지도를 진행한 자연과학캠퍼스 LC원들의 소감은 다음과 같다.

LC원들의 한마디

기호정: LC 집단학사지도를 통해 자과캠 내의 여러 학과들에 대해 알게 된 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박상은: LC원들에 대해 더 잘 알고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좋고, 멘토님 덕분에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 좋았습니다.

박정준: 멘토님이 학사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1학년 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준수: 저번 학기와 달리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아쉬웠지만 한 학기동안 진행될 내용들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송채린: 집단학사를 통해 처음으로 LC원들과 만나고 알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위종욱: 수업이 대부분 온라인이라 자주 보지 못하고 단독방에서만 보던 LC원들간의 서먹서먹한 사이를 풀어주고 서로를 더 알게 해줄 수 있던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초면에는 많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 집단면담을 통해 서로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었고, 친목을 다지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새내기로서 학교생활에 도움이 되는 내용도 얻을 수 있었다.

정세영: 멘토님이 너무 친절하셨고 동기들과 함께 해서 즐거운 시간이었다.

지건욱: 집단학사지도를 통해 전공 진입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최연제: 멘토님이 친절히 학사 내용을 알려주시고, 전 LC원들과 함께해서 좋았습니다.

최호수: 대학 진학에 관하여 여러가지 걱정되는 점이 많았는데, 집단학사를 통하여 어느정도 대학생활의 가닥을 잡을 수 있어 좋았다.

2. 기타 모임

❖ LC 오프라인 만남

구분	모임 일자	모임 목적 (친목, 학습, 봉사 등)	참가 인원
1차	3/5 혜화	친목 : 고명복 첫 대면 카페 데이트	성민, 지빈, 채린, 세영
2차	3/10 울전	친목 : 울전 우연히 만난 날	효정, 현우, 채린, 강연 +상은, 연제, 호수
3차	3/12 혜화	친목 : 01년생 여학생 모임	상은, 민경, 지원, 세영
4차	3/12 혜화	친목 : 건욱이 생일	현우, 건욱, 효정, 강연
5차	3/12 혜화	친목 : 노랑통닭	용빈, 현우, 강연
6차	3/15 울전	친목 : 영쓰 끝나고 마라탕 먹음	효정, 채린, 세영
7차	3/16 울전	친목 : 저녁에 밥 먹음	건욱, 용빈, 정준, 종욱
8차	3/19 혜화	친목 : 남자들끼리 감자탕 먹은 날	종욱, 용빈, 현우, 강연
9차	3/19 혜화	학습 + 친목 : 카공 후 단골손님 감	성빈, 지빈, 채린, 세영
10차	3/19 혜화	친목 : 고명복 끝나고 저녁 먹으러 감	용빈, 강연, 종욱, 현우
11차	3/22 울전	학습 + 친목 : 점심, 저녁 먹고 과제함	종욱, 건욱, 연제, 상은
12차	3/22 울전	친목 : 영쓰 끝나고 같이 점심	상은, 채린, 세영
13차	3/24 혜화	친목 : 육비 먹은 날	현우, 성민, 지연, 강연
14차	3/24 혜화	친목 : 영쓰 끝나고 점심	민경, 지원, 지연, 제은
15차	3/26 혜화	친목 : 노래방, 감자탕	성민, 세영, 강연, 종욱, 현우, 채린, 상은, 용빈
16차	3/29 울전	친목 : 영쓰 끝나고 점심	종욱, 채린, 세영
17차	4/2 혜화	친목 : 파스타마켓 갔다가 카페	민경, 지원, 세영
18차	4/2 혜화	친목 : 고명복 끝나고 밥	채린, 현우, 종욱, 세영
19차	4/5 울전	친목 : 영쓰 끝나고 마라탕 먹음	종욱, 채린, 세영
20차	4/9 혜화	학습 + 친목 : 카공	현우, 채린, 세영
21차	4/9 혜화	학습 + 친목 : 뽕짜이 갔다가 오가다에서 카공	용빈, 성민, 종욱, 강연
22차	4/9 혜화	학습 + 친목 : 카공 이후 공원에서 치킨	현우, 채린, 세영, 성민, 종욱
23차	4/13 혜화	친목 : 인생네컷 2번 안돼서 슬펐던 날	용빈, 종욱, 성민, 강연
24차	4/14 혜화	친목 : 영쓰 끝나고 마라탕 먹은 날	성민, 지원, 용빈, 현우, 강연
25차	4/19 울전	친목 : 영쓰 끝나고 청년다방	채린, 종욱, 세영
26차	4/19 울전	친목 : 현우 이빨 부러뜨린 날	세영, 채린, 현우, 강연 +성민
27차	4/23 혜화	친목 : 고명복 끝나고 쇼핑 후 밥	채린, 성민, 세영
28차	4/23 혜화	친목 : 고명복 끝나고 밥	상은, 정준, 건욱, 연제

구분	모임 일자	모임 목적 (친목, 학습, 봉사 등)	참가 인원
29차	4/23 혜화	친목 : 고명복 전에 점심 호호식당	채린, 지원, 민경, 연제
30차	4/23 혜화	친목 : 꼬꼬아찌 갔다가 보드게임카페	지빈, 영주, 지원, 지연
31차	4/30 강남	친목 : 밥 먹으러 감	건욱, 연제
32차	4/30~5/1 대구/부산	친목 : 대구투어+없는 용빈이 만들어 낸 날	종욱, 지빈, 성민, 강연
33차	5/3 대구/포항	친목 : 뭉티기 먹으러 대구 왔다가 포항가서 회	용빈, 현우, 강연
34차	5/8 광화문	친목 : 만나서 밥 먹음	정준, 건욱, 연제
35차	5/10 울전	친목 : 영쓰 끝나고 만다에서 점심	채린, 종욱, 세영
36차	5/13 코엑스	친목 : 아쿠아리움 갔다가 밥 먹고 쇼핑	채린, 성민, 세영
37차	5/14 혜화	친목 : 고명복 끝나고 프리모바치오바치	성민, 강연, 세영
38차	5/15 롯데월드	친목 : 놀이공원 감	채린, 현우, 세영
39차	5/17 울전	친목 : 영쓰 끝나고 니뽕내봉 먹음	채린, 종욱, 세영
40차	5/24 울전	친목 : 영쓰 끝나고 청년다방 먹음	채린, 종욱, 세영
41차	5/26 울전	친목 : 명륜진사갈비 먹음	채린, 종욱, 세영
42차	6/6~10 서울/대구/제주	친목 : 제주 여행	용빈, 종욱, 성민, 강연
43차	6/17 서래마을	학습 + 친목 : 밥먹고 카공 후 저녁	종욱, 세영, 채린
44차	6/20 서울	친목 : 압구정에서 국수	용빈, 강연
45차	6/30 안산	친목 : 만나서 밥 먹음	정준, 건욱
46차	7/29 혜화	친목 : 대포깡닭에서 밥먹고 카페	성민, 종욱, 채린, 세영
47차	8/4 안산	친목 : 만나서 밥 먹음	건욱, 연제
48차	8/13 부산	친목 : 부산 여행	성민, 강연
49차	8/31 울전	친목 : 밥 먹으러 감	정준, 건욱
50차	9/3 성민이네	친목 : 성민이 집들이	강연 외 5명
51차	9/7 안산	친목 : 만나서 밥 먹음	정준, 건욱
52차	9/8 이수	친목 : 브런치 먹으러 감	건욱, 연제
53차	9/11 이수	친목 : 만나서 영화 봄	건욱, 정준, 연제
54차	9/17 서울->대구	친목 : 추석 연휴 기차 같이 타고 감	지빈, 강연
55차	9/22 대구	친목 : 투썸 가서 여행 계획 함	지빈, 강연
56차	9/24~27 제주	친목 : 제주 여행	현우, 지빈, 영주, 강연
57차	10/4 울전	친목 : 만나서 밥 먹음	건욱, 정준, 준수
58차	10/8 성민이네	학습 + 친목 : 만나서 밥 먹고 같이 수업 들음	지빈, 민경, 강연
59차	10/10 안산	친목 : 밥 먹으러 감	정준, 건욱
60차	10/23 성민이네	친목 : 종욱 우리 밥해주다가 손 잘림	성민, 종욱, 채린, 현우, 세영
61차	11/3 성민이네	친목 : 봉어빵 먹고 투썸가서 공부함	성민, 종욱, 강연

- 소감 및 사진

1차



연제: 에프지 선배를 처음 만난 날이기도 하고 처음 만난 엘씨 친구들도 있어서 기억에 남는 날입니다.

2차

효정: 울전에서 명륜엘씨원과 마신 첫 술이고, 채린이랑은 거의 첫 만남이었는데 정말 너무 즐거웠습니다 ~~

상은: 처음보는 엘씨원들과 우연히 마주치게 되어 신기했고 친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 재미있었다

3차



지원: 01년생들끼리 같이 밥 먹어서 편하고 좋았습니당~ 아무래도 21학번에 21살이 얼마 없다보니 친해지기 훨씬 편해서 재미있어요!!

8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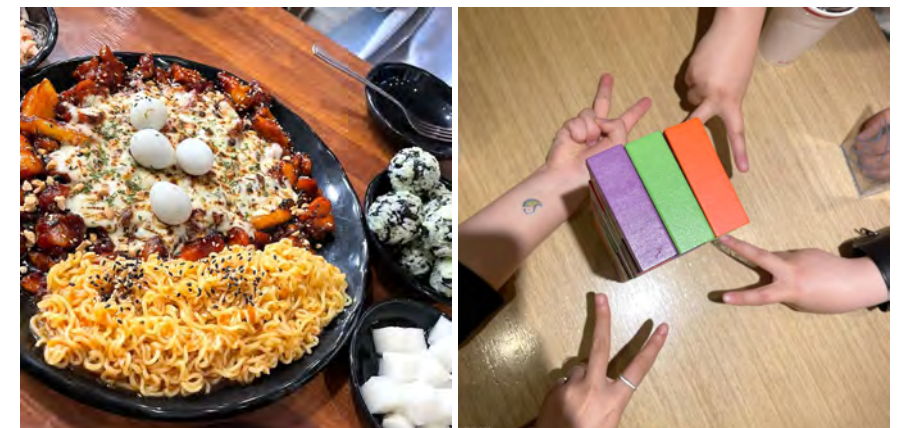
15차



17차



30차



영주: 지연이, 지빈이, 지원언니와 함께하는 시간은 진짜 재밌다. 다같이 2번밖에 안 만났지만 처음부터 쿵짝이 잘맞아서 신나게 놀았다. 함께 보드게임 카페도 가고, 지연이 집들이도 하고, 같이 술도 마시고 많은 걸 했다. 하지만 더 많은 걸 같이 하고싶다!

36차



37차



38차



43차



46차



50차



지빈 : 처음부터 급하게 계획된 여행이었지만 정말 완벽한 여행이었다!! 풍경도 이뻐고, 일정도 알차고, 음식도 맛있어 눈과 입과 몸이 모두 정말 즐거웠고, 처음에는 어색하게 인사하고 낮을 가렸던 영주랑 현우랑 친해지는 과정을 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었다ㅎㅎ 이렇게나 완벽해도되나 싶을 정도로 큰 사건없이 완벽하게 흘러간 여행이었고, 마지막 떠나는 날이 너무 아쉬울 정도로 좋았다. 물론 이 모든것이 코스짜기부터 운전까지 모든 것을 수행해주신 강연오빠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당ㅎㅎ 담에는 겨울의 제주도로 다시 여행가자ㅏㅏ

강연 : 어쩌다 찾아본 제주 항공권이 싸길래 어쩌다 급 결성되어 가게 된 제주 여행. 천혜의 자연을 가진 제주의 예쁜 곳들을 가기 전 미리 찾아보는 시간에서 이미 설렘으로 가득했다. 비록 많이 돌아다니는 일정이라 힘이 들기도 했지만, 그 만큼 보고 느낄 수 있는 것이 많았고, 무엇보다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에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 LC 오프라인 만남

- 소감 및 사진

박정준 : 그때 코로나가 심각했어서 LC원들 만나게 꺼려했었는데 줌으로라도 얼굴보고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던것 같습니다 ^^

박지빈 : 코로나 때문에 여러명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 적었지만 전화로라도 함께 시간표를 짜고 고민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조용빈 : 1학기 대면수업 때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하던 LC원들이었는데, 2학기에 갑자기 코로나 19로 인해 이렇게 보기 힘들어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얼굴도 보고 목소리도 들으며 서로의 근황을 공유하며 웃고 떠들 수 있어서 좋았다. 내년에는 부디 온라인이 아닌 캠퍼스에서 다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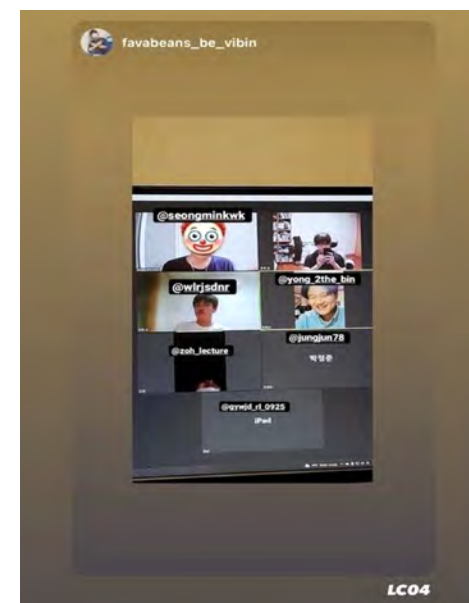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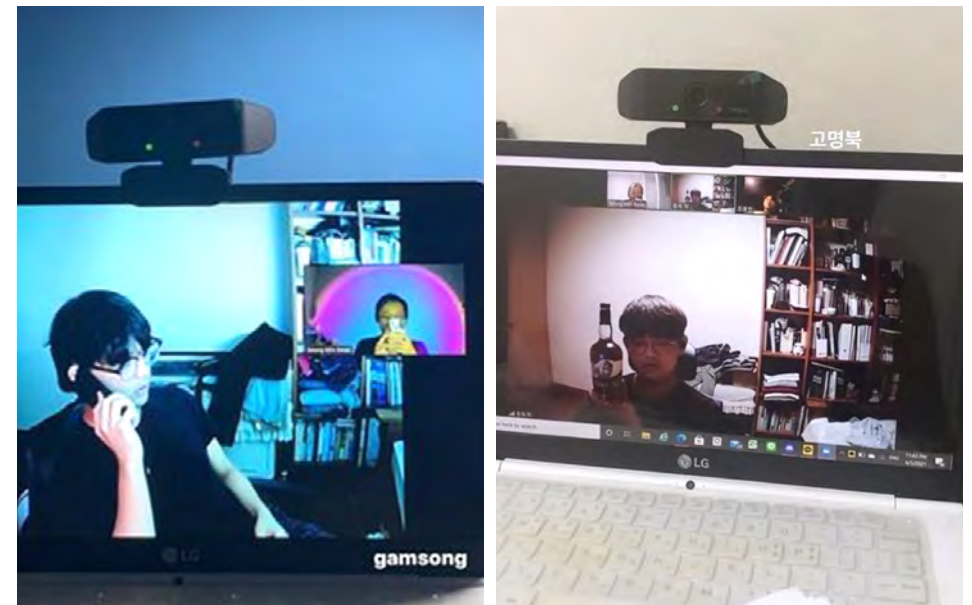
조강연 : 비록 거리상의 문제와 코로나로 인해 방학 기간 대부분의 LC 친구들의 얼굴을 직접적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화상으로나마 서로 교류를 하고 친분을 나눌 수 있는 소중한 소통의 장이 열렸기에 행복했다. 다만 사람의 관계는 직접 대면을 할 때 더 돈독해지는 만큼 하루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 그러한 장이 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곽성민 : 여름방학 때 엘씨원들의 얼굴 오랜만에 보고 목소리도 오랜만에 들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엘씨원들이랑 재미있는 이야기도 나누어서 좋은 추억이었습니다!

지건욱 :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으로라도 학우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기호정 :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랜만에 보는 엘씨원들 얼굴이 무척 반가웠고 여러 이야기를 주고 받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대면으로 만나지 않아도 충분히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이 정말 좋았던 것 같다.

위종욱 : 다들 평상시에 코로나로 인해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늦은 밤에 과제를 같이 하거나, 같이 술을 마시기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백민경: 벌써 새내기 일년을 마무리한다니 실감이 안나는 것 같아요. 사실 합격 통지서를 받고 나서야 계열제에 대해 이해하고, 학교에 LC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인문계열로 들어와서 자과캠 친구들이랑 친목을 나눌 수 있다는 점도 좋았던 것 같아요. 팀빌딩 때 처음 만난 우리 LC원들이 정말 다행히도 너무너무 좋았고, 그 인원에서 이탈 없이 일 년을 마무리하게 되어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학기 대면 고명복을 하며 LC원들을 만날 기회가 잦았고, 고명복 전후로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면서 재미있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롱패딩을 입었던 겨울에 처음 만나 벚꽃이 활짝 핀 교정의 모습을 함께하고, 에어컨 없이 살 수 없었던 한여름도, 그리고 학교가 노랗게 물든 가을까지 이탈 없이 모든 LC원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건 참 축복인 것 같아요. 1년 늦게 들어와 친구 만나는 것에 걱정했던 순간들을 LC원들이 다 지워주었고, 정말 소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고명복 전 후에 혜화에서 유명한 식당들에서 밥 먹고, 카페도 가고, 혜화역부터 학교까지 걸어가기도 하고 늦어서 택시타고 뛰어다 보고, 모든 순간들이 다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어요. LC원들 말고는 타 수업에서 새로 만난 친구들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 LC원들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즐겁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쉬웠던 점을 하나 꼽자면, 코로나로 인해 모든 인원들이 모여서 회식을 할 수가 없었다는 점인데, 얼른 인원 제한이 완화되어 LC원들과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엠티도 회식도 그 무엇도 하지 못했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이번 겨울엔 인원 제한이 완화되어서 엠티도 가고, 파티룸에서 술도 먹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내기 일 년을 우리 LC04와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학교에서 임의로 맺어준 20명의 인원이 이렇게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함을 느끼는 일 년이었습니다. 이제 2학년이 되면 명-올 친구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겠지만, 올해 만난 인연들이 소중하게 이어나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못난 피리 옆에서 수고 많았어ㅠㅠ 다들 전공 진입까지 파이팅 ♥♥♥

기호정: 2021년 LC04 벌써 끝나는 걸 보니 너무너무 아쉽네요~ LC원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모습 너무 보기 좋고,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오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활동들 열심히 참여해 줘서 정말 고맙고, 고명복 수업 전후로 함께 모여서 밥이랑 술을 먹던 때가 그리울 듯 하네요.,~ 2학기 초반에 비대면이어서 많이 못 만난 점은 굉장히 아쉽지만 조만간 창용디로 울전에서 만날 생각하니 정말 기쁘요~~ 앞으로도 다들 즐겁고! 사이좋게 마무리합시다!! LC04 파이팅~~

곽성민: LC원들이랑 1년동안 많은 활동은 못했지만 1학기 때는 LC원들이랑 같이 밥 먹고 얘기하면서 웃는 추억들이 많아서 그게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2학기 때는 다 비대면 수업이라서 LC원들이랑 많이 못 만났던 점이 되게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은 딱 한 개 있는데 그게 바로 MT입니다!!

민현우: LC활동을 하면서 학교에서 진행하는 필수 수업을 LC 학우들과 함께 들을 수 있었고,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영어 수업이 끝나면 밥도 같이 먹었고, 놀러도 갔으며 사진도 많이 찍을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고전 명저 북클럽 시간에는 LC 학우들과 함께 서로의 생각을 나누며 재미있는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일 수 있는 인원엔 제한이 있었고, 활동 시간에도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다 같이 놀 수 없어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 LC 학우들과 다같이 놀러가고 싶습니다.

박제은: 재밌었던 점: 대학교에 입학하고 특히 계열제이기 때문에 사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한정적이었는데 LC원들을 만나고 알아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또 LC 잠바를 제작하고 함께 단체 사진을 찍은 것도 되게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점: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여러 활동에 제약이 생긴 게 가장 아쉬웠어요. 인원 제한 등으로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도 적고 해서 코로나 이전의 LC처럼 활동할 수 없었던 게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 우선 이전에 계획했던 MT가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인 것 같아요. 대학교에 오면 꼭 가고 싶었던 활동이기도 하고 LC원들과 친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취소되어서 되게 아쉬웠어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면 친해지지 못했던 LC원들과 함께 밥도 먹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박지빈: 코로나여서 대면으로 많이 만나지 못했지만 그 와중에도 다들 많이 만나려고 노력해서인지 많이 친해질 수 있어 좋았어!!! 1학기에는 같이 수업도 들으며 나름 대학생다운 생활?도 경험해볼 수 있었는데 이때 엘씨원들과 많이 친해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특히 지원언니 영주 지연아 함께하는 시간이 넘넘 즐거웠어!! 몇번 만나지 못했지만 만날때마다 어색하지 않아서 진짜 편하구 좋았다궁 우리 엘씨만큼 서로서로 많이 친해지고 편한 엘씨는 없을거야!!! 엘씨04여서 정말 좋았습니당 우리 계속 만나자ㅏㅏ 글고 이번엔 종강하고 엠티 꼭 가요~)

염원: 1년 동안 LC 친구들과 학교 근처에서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팀플을 하기 위해 같이 카페에 가는 등 사소한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점이 좋았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많아 자칫하면 친구를 하나도 사귀지 못하고 2학년이 될 수도 있었는데, LC 안의 다양한 친구들과 친해지고 함께 공부하고 재밌게 놀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많이 만날 수 없었던 LC 친구와는 개인적으로 말을 섞은

일이 없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위드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바이러스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면 LC 친구들과 다 같이 한 식당에서 모여보고 싶습니다.

서지연: 재미있던 점: 대학교 생활을 시작하며 다양한 학생들과 새롭게 조를 만들어서 이제껏 못해봤던 활동들을 함께할 수 있어서 재미있고 신기했다.

아쉬웠던 점: 코로나 시국이어서 많은 LC원들과 한자리에서 함께 만나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다. 또한 적극적으로 LC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여서 많은 LC원들과 친해지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 이제 코로나가 덜 심각해진다면 인원제한 없이 LC원들과 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송지원: 대학교 들어오면 거의 다 동생들이라 잘 적응 못할 줄 알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게 지내서 행복했어요ㅠㅠ LC원들이랑 모여서 보드게임카페도 가고 술도 마시고 ㅎㅎ 태어나서 처음 술게임도 해보고 뭔가 진정한 대학생이 된 듯한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ㅎㅎ 그러구 너무 재미있었어요!! 특히 우리 피리랑 부피리가 분위기를 너무 잘 이끌어줘서 내성적인 저에게도 친한 동기들이 생겼어요 ㅎㅎ (피리, 부피리 짱♥)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인원제한이 생기면서 많은 인원이 같이 놀 수가 없는 점이 너무너무 아쉬웠어요... 거의 1년이 다 지나가지만 못 친해진 LC원들이 많아서 너무 슬프고 아쉬워요ㅠㅠ 다같이 술 마시면서 술게임도 하고 같이 여행도 가고 재미있게 보내고 싶어요 ㅎㅎ 특히 같이 MT가서 고기 먹으면서 못 친해진 사람들이랑 얘기도 많이 해보고 더 친해지고 싶어요!!! LC는 일년제지만 LC04는 영원하길♥

장영주: 고전명저북클럽 수업 시간에 간간히 LC원들과 담소를 나눴던 것도 재미있고(스물 토크 ㅎㅎ), 공강 시간이 맞는 LC원들끼리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었던 것도 재미있었고, 강연 오빠, 현우, 지빈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던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아니었다면 더 자주, 더 많은 LC원들과 만남을 가졌을텐데 그러지 못한 게 가장 아쉽고, 엠티, 회식 등 LC 단체로 할 수 있는 활동들도 못해서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LC원 모두와 함께 엠티 or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조강연: 재미있었던 점: 우선 한 해를 다시 수능을 치르느라 고생하고 들어온 좋은 학교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너무도 좋습니다. 성격도 밝고 쾌활한 친구들과 같은 LC가 되어 대구, 부산, 제주 등 전국 각지를 여행다니면서 우정도 쌓고 둘 없는 사이가 될 수 있었던 한 해였기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아쉬웠던 점: 코로나로 인해 새터, MT, 과팅 등 대학교 새내기들의 로망인 것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 아쉽습니다. 또 인원 제한으로 제대로 된 LC 전원 참석의 사적 모임을 가져보지 못한 것 역시 아쉽습니다. 그리고 올전캠 디도에서 같이 공부하지 못한 것도 아쉬울 따름입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 이제 위드코로나도 실행되는 만큼 위에서 언급한 못 해본 활동들을 하며 더욱이 밝고

즐거운 LC04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조용빈: 저는 우선 코로나 상황임에도 LC04의 일원이었기에 더욱 더 재밌고 알찬 새내기 1년을 보낼 수 있었음에 모든 LC04 구성원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가장 재밌었던 점은, 학기 초반에 여러 LC 미션들을 수행하며 학교 근처에서 LC원들끼리 활동을 했던 점입니다. 다 같이 약속을 정해서 LC 과장을 입고 사진 촬영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가장 아쉬웠던 점은, 원래 계획했던 MT를 코로나 상황이 4단계로 급격히 악화되면서 가지 못 했던 점입니다. 아마 다른 LC원들도 이 부분이 가장 아쉬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은 코로나 상황이 허락하는 하에서 이전에 가지 못했던 MT를 가는 것입니다. 2학기 수업이 비대면 위주로 진행되면서, LC 구성원 얼굴을 보지 못한 지도 오래인 것 같은데, 꼭 기회가 되어서 다 같이 재밌게 놀다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정준: LC원들이랑 고명복이나 창웅디 같이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서로 얘기를 나눴던 게 재밌었던 것 같고, 같은 계열 사람들 말고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었어서 좋았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올해도 코로나때문에 자유롭게 여러 모임을 갖지 못했던 게 아쉽고 1학년이 끝나고도 앞으로 대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연락하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

박준수: 재미있었던 점: 코로나로 인해 활동들에 제한이 있었고, 등교에도 제한이 있었지만 만날 때는 소소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아쉬웠던 점: 모임의 인원제한으로 인해 학기 초 많은 LC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한 것이 아쉽다.

앞으로 하고싶은 활동: 위드코로나로 점점 인원 제한이 풀리는데 상황이 더 좋아지면 LC원들 다같이 여름방학 때 가지 못했던 MT를 갔으면 좋겠다.

정세영: 재미있었던 점: 대학에 들어와서 동기와 어떻게 친해지지는 생각이 들었는데 LC를 통해 많은 동기들과 친해지고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재밌고 즐거웠다.

아쉬웠던 점: LC원들끼리 다같이 놀러가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MT를 못 가게 되어 아쉬웠다. 그리고 5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해 LC원들끼리 단체로 식사를 못 해본 것도 너무 아쉬웠다.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 다같이 여행가기, MT, LC 회식

최호수: 1년동안 LC04에 소속되며 가장 좋았던 점은 함께 무언가를 같이 하는 동료의 있다는 점이였다. 특히 김해에서 올라와 새로운 친구를 잘 만들 수 있을까 불안했던 나에게, LC04의 친구들은 굉장히 중요한

친구들이었다. 특히 1학기 고전명저북클럽 과목을 수강하며 LC원들과 함께 있었던 경험은 내 대학생활에 굉장히 큰 활력소가 되어 주었다. 하지만 2학기 들어 더욱 심해진 코로나로 인하여 LC원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줄어든 것이 굉장히 아쉬웠다. 코로나가 이후 잠잠해진다면 모두가 모여 함께 식사를 하거나 함께 여행을 가는 등의 활동을 눈치보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좋겠다.

박상은: 코로나 때문에 다같이 만나거나 하지는 못했지만 적은 인원이라도 같이 만나서 밥도 먹고 친해진 것 같아 재미있었습니다! 시험기간 때 LC단톡방에서 서로 응원도 해주고 기프티콘도 보내고 한 것도 기억에 남아요. 다른 LC보다 다들 친하게 지내는 편인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코로나 때문에 LC원 전체가 한꺼번에 모인 적이 없는 점이 굉장히 아쉬운데, 코로나가 조금 괜찮아진다면 다함께 모여서 회식을 하거나 MT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중욱: 재밌었던 점: 다른 대학 학생들에 비해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생활을 즐길 수 있었고, 가끔씩이지만 다들 같이 모일 수 있었다는 점이 좋았다

아쉬웠던 점: 10인 이상 집합이 불가하여 MT나 회식 등을 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 저번학기에는 하지 못한 LC원들과의 회식, 그리고 MT

송채린: 음 일단 돌이켜보면 LC원들끼리 좋은 추억을 많이 쌓은 것 같습니다. 같이 수업 끝나고 항상 같이 카페가서 공부하고 공부 끝나면 신나게 놀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속에 다들 어색해서 '내가 과연 여기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피리님과 부피리님이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기회를 잘 만들어주셔서 지금은 다들 가족같은 사이가 된 것 같아요!! LC원들끼리 공부 관련한 얘기도 많이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주기도 하면서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놀 때는 되게 잘 놀아서 술도 많이 마시고 흑역사도 많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방학 때도 따로 만나서 놀러다니기도 하고 이제는 수업이 없어도 따로 만나서 놀 만큼 친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다만 코로나때문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져서 아직 모든 LC원들과 친해지지 못한 게 아쉬워요. 앞으로 엠티도 가고 LC원들끼리 더 많은 활동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LC04에 배정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정말 행복했습니다~

지건욱: 학기 초부터 다른 대학들과는 달리 많은 만남을 가졌던 것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대학 새내기로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정말 좋았고 만나본 모든 LC분들이 좋은 사람들이었던 것은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리두기 및 코로나 악화로 LC 전체가 함께할 수 없었던 상황이 너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LC 다 같이 여행을 떠나고 싶고 아직 만나보지 못한 LC 친구들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또 LC 전체 회식도 해보고 싶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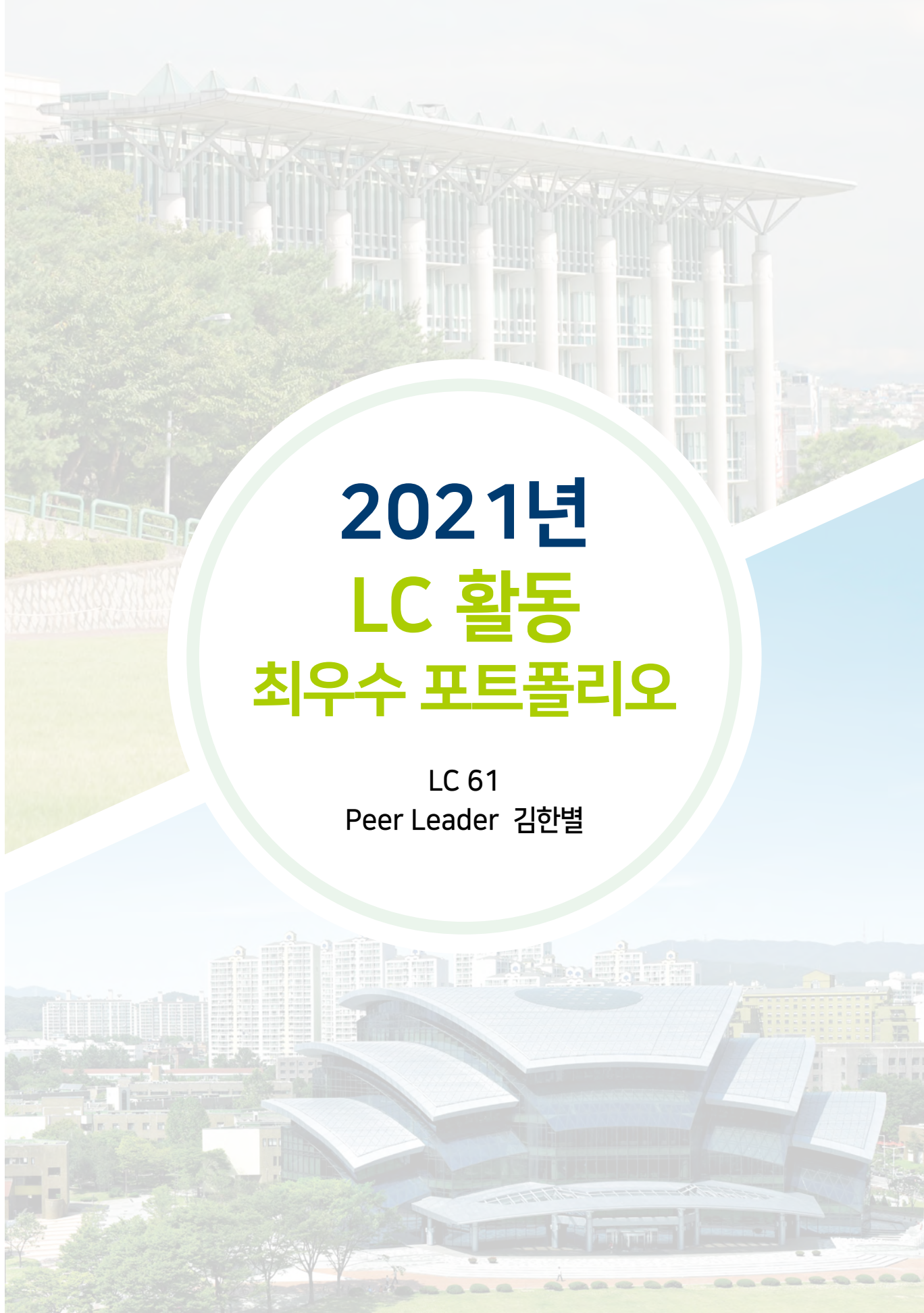
최연제: 재밌었던 점: 등교할 때 같이 듣는 수업이 있어서 LC 친구들 얼굴도 보고 밥도 먹으면서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어요!

아쉬웠던 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생각보다 많이 만나지 못하고, 엠티도 취소되면서 추억을 더 쌓지 못한 점이 아쉬워요.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 FG의 한마디

권승아 FG: 팀빌딩 때부터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해줘서 고마웠던 LC04!! ♥ 지루한 학사안내도 열심히 들어주고 어색한 게임에도 열심히 참여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그 후에 본 친구들도 있지만 못 본 친구들도 많았는데, 그 어떤 엘씨보다 제일 빠르게 친해지고 가까워지는거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년동안 엘씨 활동 열심히 해주고 엘씨원들끼리 잘 지내는 모습이 너무너무 예뻐어요! LC04 최고!



2021년 LC 활동 최우수 포트폴리오

LC 61
Peer Leader 김한별

01

LC 포트폴리오 작성 참여자 및 역할

번호	계열	이름	역할 분담
1(PL)	자연과학	김한별	취합 및 각종 파일 첨부
2(VPL)	사회과학	서정욱	어깨동무, 집단학사지도 등 소감문 작성
3	공학	박정윤	어깨동무, 집단학사지도 등 소감문 작성
4	공학	이재준	어깨동무, 집단학사지도 등 소감문 작성
5	사회과학	이민우	어깨동무, 집단학사지도 등 소감문 작성
6	자연과학	서윤주	어깨동무, 집단학사지도 등 소감문 작성
7	사회과학	정서현	어깨동무, 집단학사지도 등 소감문 작성
8	사회과학	이주현	어깨동무, 집단학사지도 등 소감문 작성
9	인문과학	한동주	어깨동무, 집단학사지도 등 소감문 작성

※ PL: Peer Leader / VPL: Vice Peer Leader

02

우리 LC의 특징

❖ PL의 한마디 ♥

이때까지 LC활동을 하면서 생각보다 다들 잘 친해져서 신기하기도 했고, 활동을 이어나가기에 수월해서 고맙습니다. 공지 전달이나 활동 계획을 말하면 다들 반응이 좋아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도 된 것 같다.

❖ 우리 LC는 000대!

이민우: 우리 LC는 "무인도에 떨어져도 우리만의 국가를 세울 모임"이다.

우리 LC는 모든 LC원들이 각자 잘하는 분야가 있고, 그 분야가 모두 달랐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맡은 바는 책임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매 수업에서 보여줬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우리 LC는 무인도에 떨어져도 생존을 위한 각자 맡은바를 다해 오순도순 살아갈 국가를 세울 수 있을 것 같다.

이재준: 우리 LC는 인싸집단이다!

61LC는 모두 친화력이 출중한 학우들로 모여 1학기 초부터 굉장히 빨리 친해졌다. 엄청난 친화력으로 모두 친해질 수 있었고 다른 LC와는 다르게 빠르게 친해져 학기 초에 같이 술도 마시고 놀러도 다니면서 가까워질 수 있었다.

이주현: 우리 LC는 잘 모여 논다!

명륜은 명륜끼리, 울전은 울전끼리, 때로는 섞어서, 만날 수 있는 인원 제한 수만큼 잘 만나서 노는 것 같다!

정서현: 우리 LC는 가족이다.

서정욱: 우리 엘씨는 학창시절 반 같다.

같이 놀면 편안하고 재미있기 때문이다.

한동주: 우리 LC는 보물 창고다!

다양한 보물같은 사람이 많으니까 ~~

박정윤: 우리 LC는 떡볶이다.

어묵과 떡 처럼 인문이랑 자연은 얼핏 보면 안 어울릴 수도 있는데 떡볶이라는 요리처럼 lc라는 한 단체를 구성해서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1. 참여 LC 프로그램

❖ 어깨동무 자율학습 동아리



- 구분/주제 : 미분적분학1
- 참여 인원 및 명단 : 6명(박정운, 김금용, 김선용, 안준영, 이재준, 민유민)
- 활동 기간 : 2021. 3. 17. ~ 2021. 5. 10.
- 좋았던 점 : 어깨동무에서 미분적분학을 엘씨들과 함께 복습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며 점점 자신감이 생겼다. 실제로 시험공부 기간에도 엘씨들과 풀었던 문제들이 도움이 많이 되었고 생각보다 좋은 시험 점수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억지로라도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니 자연스럽게 엘씨들과 더욱 친해질 수 있었다.

LC원들의 한마디

박정운: 매우 만족한 활동이었고 추천하고 싶은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김금용: 미적분에 대해서 친구들과 의견을 공유하며 문제를 풀수있어서 더욱 성장할수 있었던것 같다.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니 더욱 부듯했고 모르는것을 물어보고 아는 것을 가르쳐주며 정말 미분적분학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기회가 된다면 또 해보고 싶다.

이재준: 어깨동무를 진행하면서 미적분문제에 대한 어려운 점들을 나누면서 서로 해결해줄 수 있어 보람있었다. 문제를 같이 풀다보니 자연스레 실력도 늘게 되었고 원래 알고 있던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더 완벽하게 푸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었다.



- **구분/주제** : 컴퓨팅사고와SW코딩
- **참여 인원 및 명단** : 6명(서정욱, 문규민, 이민우, 김준영, 김지연, 김수아)
- **활동 기간** : 2021. 3. 17. ~ 2021. 4. 14.
- **좋았던 점** : 낯선 코딩과 관련된 수업을 한 학기 간 어떻게 들을지 많이 막막하였는데 어깨동무를 통해 어려움을 하나씩 극복해 나갈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파이썬의 함수의 개념이 어려웠으나, 친구들의 도움으로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다.

LC원들의 한마디

서정욱: 처음 배워보는 컴퓨터 언어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친구들과 상의하며 혼자서는 어려운 문제도 풀 수 있었습니다.

이민우: 어깨동무를 통해 컴퓨팅사고와SW코딩의 개념을 친구들과 학습할 수 있었다. 교과에 대한 이해도 향상뿐만 아니라 자습할 때도 크게 도움이 되었다.



- **구분/주제** : 일반화학1
- **참여 인원 및 명단** : 5명(김한별, 서윤주, 임단비, 조재민, 채주완)
- **활동 기간** : 2021. 9. 15. ~ 2021. 10. 28.
- **좋았던 점** : 2주차마다 한 번씩 문제풀이 과제가 나오는 일반화학 과목을 어깨동무를 통해서 엘씨원들과 함께 들을 수 있어서 과제하는 데에도 수월했고, 매 차시 진행할 때 마다 얘기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친목에도 도움이 되었다.

LC원들의 한마디

김한별: 대학에서 처음 화학수업을 신청했을 때,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또래 모임에서 이렇게 서로 질문을 할 수 있다는 활동이 있어 심적으로 의지가 되었다. 각

학습주도자가 수업을 준비해오는 식으로 진행했는데, 각자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크게 올라갈 수 있었다. 또한, LC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 어깨동무 조여서 그런지 더 친밀감이 생기는 기회가 된 것 같다. 어깨동무 조의 대표로서 항상 일정을 챙긴다던가 하는 책임감을 가지게 된 경험도 큰 도움이 되었다.

서윤주: LC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온라인 모임을 가지면서 더욱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또 서로 모르는 부분을 같이 의논하면서 문제를 푸는 과정이 도움이 많이 되었다. 문제를 함께 풀면서 모르고 있었던 다른 풀이 방법을 찾기도 했다. 학습 주도자 역할을 하면서도 배운 것이 많았다. 서로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면서 얻은 것이 많은 활동이었던 것 같다



- **구분/주제** : 문제해결과알고리즘
- **참여 인원 및 명단** : 5명(서정욱, 이주현, 이민우, 정서현, 한동주)
- **활동 기간** : 2021. 9. 15. ~ 2021. 10. 28.
- **좋았던 점** : 문제해결과알고리즘 과목은 매주 과제와 퀴즈가 있습니다. 이 과제를 혼자 해결하는데 많은 애를 먹었지만 막히는 점이 있을 때마다 어깨동무 조원들과 어깨동무 활동을 통해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LC원들의 한마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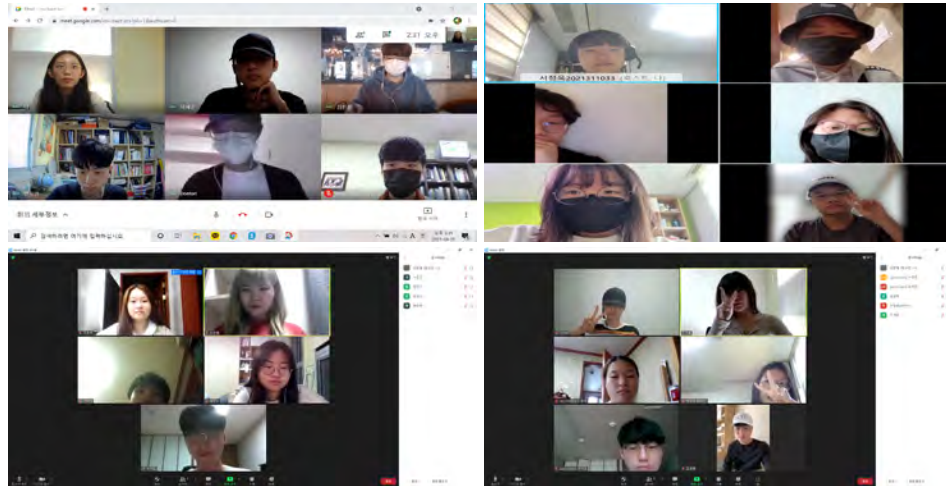
서정욱: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이 더 흥미롭고 즐거웠다.

이주현: 모르는 문제들을 배울 수 있어 좋았다.

이민우: 친구들에게 도움을 주며 복습하고 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서현: 어깨동무를 하며 팀프로젝트 과제도 함께 진행하였는데 소통이 빈번히 일어난 점이 좋았다.

한동주: 코로나로 친구들을 만나기 어려웠는데 온라인으로나마 볼 수 있어 좋았다.



❖ 기타

집단학사지도



- **참여 인원 및 명단** : (작성인원 중) 김한별, 박정윤, 서정욱, 서윤주, 이민우, 이재준, 이주현, 정서현, 한동주
- **활동 기간** : 2021. 9. 6.
- **좋았던 점** : LC원들을 오랜만에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각종 정보를 얻거나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좋았다.

LC원들의 한마디

박정윤: 학기 집단학사지도는 오프라인으로 했는데 우선 엘씨들을 직접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다. 처음 강의실을 찾아가고 많은 엘씨원들과 한 번에 만나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뜻 깊었다. 그리고 집단학사지도가 끝나고 놀러갔던 순간의 풋풋함은 아직까지 잊을 수 없다. 그러나 2학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온라인으로는 많이 만나기도 했고 1학기 종강을 하고 만나보지 못 했던 친구들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어서 아쉬웠다.

서정욱: 필수적인 정보들을 얻을 수 있어 집단학사지도 프로그램은 매우 유익했다.

서윤주: 성균멘토님께서 정말 친절하게 대학생활과 관련된 정보들을 설명해 주셔서 1학년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지 정하는 데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민우: 명륜 친구들과끼리 진행된 학사지도여서 명륜캠퍼스에 적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자료만 보고서는 알 수 없었던 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었고, 성균멘토님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사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었다.

이재준: 집단학사지도를 진행할 때 다른 LC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만날 수 없었던 명륜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잘 만나지 못했던 명륜 친구들과 한층 더 가까워진 느낌을 받았다.

이주현: 신입생으로 학교에 들어와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는데, 집단학사지도가 도움이 되었다. 1학기에는 수강신청과 전반적인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이 진행됐다. 이때 들은 정보들은 한 학기를 보내는 동안 매우 유용했다. 같은 엘씨부원들과 온라인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 반갑기도 했었다. 2학기에는 전공진입에 관한 지도를 받았다. 막연했던 전공진입 절차가 더욱 뚜렷해져서 좋았다.

정서현: 2학기에 필요한 정보들을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좋았다. 또한 LC원들과 웹상에서 만나 같이 수업을 들어 좋았다.

한동주: 전공 진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자세히 알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다.

2. 기타 모임

구분	모임 일자	모임 목적 (친목, 학습, 봉사 등)	참가 인원
1차	3/26	친목	20
2차	4/1	친목 - 만우절을 맞아 교복을 입고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친구들)교복을 입고 사진을 찍음 (자연과학캠퍼스 친구들)교복을 입은 채로 영어쓰기 수업을 듣고 함께 사진을 찍음	11
3차	6/15	친목 - 놀이공원	5
4차	10/30	친목	18
기타	-	친목 - 직권배정과목을 함께 듣고 밥을 먹거나, 보드게임 등 활동한 것	-

- 소감 및 사진

1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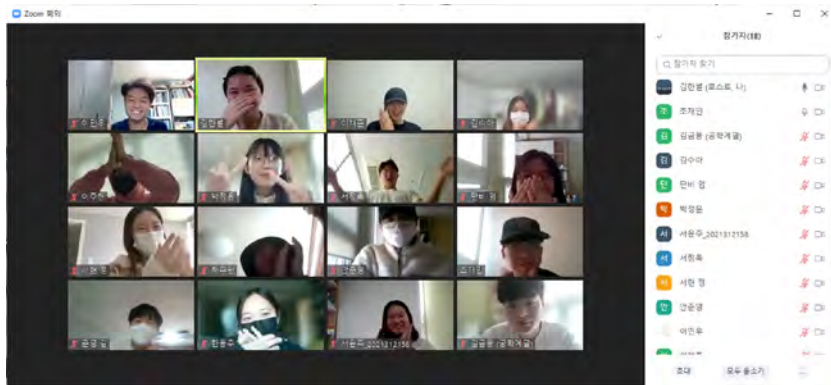


2차



3차





박정윤: 그래도 2학기에는 고명복을 하다보니까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익숙해서 그런지 아니면 얼굴들이 조금 낯 익어서 그런지 온라인 만남도 그렇게 낯설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 온라인 만남을 하면서 느끼게 벌써 온라인 세상에 내가 적응을 했다는 것이다. 직접 만나는 것도 반갑고 좋지만 굳이 시간 투자하고 체력 투자해서 만나는 것보다 오히려 좋다고 생각했다. 다같이 시간 맞추기도 훨씬 수월하고 얼굴도 보니까 일석이조같은 느낌이었다.

서정욱: 코로나로 인해 모임을 갖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친해지기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온라인으로나마 만나 즐거운 시간이 됐다.

서윤주: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가끔씩 모임 때마다 정말 재밌는 시간을 보냈고 또 모임 때마다 조금씩 더 친해질 수 있어서 좋았다.

이민우: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도 이렇게 자주 만날 수 있는 지 우리 LC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코로나로 인해 LC가 다같이 듣는 수업인 창의적융합디자인과 고전명저북클럽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LC끼리 자주 모이지 못할 것이 걱정되었다. 그러나 매 수업이 끝난 후 원격으로 모여 각자의 근황을 이야기하며 그 걱정이 사라졌다. 방역수칙을 지키면서도 서로에 대한 친밀감을 쌓을 수 있었다. 비록 곧 LC가 마무리되지만 전공진입 후에도 서로 자주 모이길 기대한다.

이재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인원이 한번에 모일 수 없어 온라인 상으로 모임을 진행했지만 모임을 진행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재밌는 추억거리를 쌓을 수 있어서 앞으로도 생각날 것 같은 추억이었다.

이주현: 1학기부터 11월 전까지는 4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적은 인원으로도 만날 수 있었다. 오프라인으로 다 같이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을 온라인 웹 모임으로 대신했다. LC 부원들을 온라인으로나마 만날 수 있어 좋았다. 2학기 후반부나, 겨울방학에는 더 많은 인원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정서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 아쉬웠는데 웹 모임을 통해 친목을 다질 수 있었다. 오프라인으로 만났다면 더 좋았겠지만 온라인만의 감성이 있어 즐거웠다.

한동주: 코로나 때문에 아직 직접 전원이 모인 적이 없어서 아쉽지만, 이렇게라도 근황을 서로 전할 수 있어서 좋았다. 얼른 코로나가 끝나서 다같이 회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04

LC원들의 한마디

김한별: 모두 덕분에 1년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 종강하고 우리 여행가자 ㅎㅎ

박정윤: 내가 조금 더 분위기 메이커가 되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쉬워. 우리 이제 각자 전공 찾아서 떠나면 친해지기 더 힘들겠지? 1년 동안 나랑 같이 놀아 본 친구도 있고 말 한마디 안 해본 친구도 있을텐데 다같이 못 친해져서 정말 너무 엄청 아쉬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다같이 놀자!

서정욱: 길 것만 같았던 1년을 함께 보낸 친구들이라 곧 해체되는 것이 아쉽고 섭섭한 것 같다. 서로 알아가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았지만 이렇게나마 친해질 수 있어 다행이다. 함께해서 즐거웠다.

서윤주: LC라는 집단에 소속되어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귄 수 있었고 대학생활을 함께 할 친구들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앞으로 남은 대학생활 동안에도 자주 보면서 즐겁게 대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우: 비록 코로나 때문에 자주 만나진 못했지만 앞으로 만날 시간은 훨씬 더 많으니깐 전공진입 후에도 우리 LC61 다시 뭉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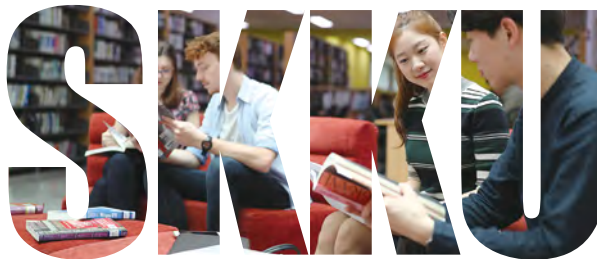
이재준: 전체적인 활동을 진행하면서 LC원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다른 친구들과의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2학년이 되어서도 LC원들과의 연락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로 남고 싶다.

이주현: 코로나로 인해 많은 활동을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적은 인원으로 짧게나마 LC원들을 만나면서 유대감을 쌓을 수 있었다. 대계열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LC로 묶여있는 느낌이 좋았다. 대계열에서는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웠지만, LC 부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대학 생활에서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고, 우리 대학이 내집단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서현: Lc가 없었다면 친구를 사귀는 게 힘들었을 것 같다.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되었고 재밌는 추억들이 많이 생긴 것 같다. 2학년이 되어서도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한동주: 첫 대학 생활을 우리 LC원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 함께할 대학 생활이 너무 기대돼! 계속 학년이 올라가서도 잘 지낼 수 있으면 좋겠어.

Global Leading University



인문사회과학캠퍼스
자연과학캠퍼스

(0306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1641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T. 02-760-0114
T. 031-290-5114